

# KISA & KISA

마라톤 동호회

## 42.195km를 향해 달린다

인생과 자주 비교되는 스포츠가 마라톤이다. 마라톤의 42.195km는 두 다리를 쉼 없이 움직여도 최소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도달 가능한 거리. 이 긴 거리를 자신과의 싸움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이 그 이유다. KISA 마라톤 동호회가 42.195km를 준비하기 위해 10km 단축 마라톤에서 그 실력을 가늠해 봤다. 출발선에서 느끼는 부담감에서부터 완주의 기쁨까지.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다.

정보호뉴스 취재팀

.....출발을 앞두고.....

10명의 동호회원들이 '중앙 서울 단축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다. 직장인이라는 특성 상 회원들 대부분은 정신력으로, 혹은 평소에 다져진 체력으로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일까? 10km가 이들에게는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 러닝머신을 빠르게 달려도 50분을 즐기차게 뛰어야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의 앞에는 가파른 언덕과 장애물도 놓여 있다.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8시 20분. 드디어 출발 총성이 울렸다. 폭죽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줄지어 이어지고,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차량은 일제히 도로 위에 멈춰 서 있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고, 아스팔트 위는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내려온 땀으로 젖기 시작했다. KISA의 작은 영웅들 역시 마찬가지로, 5km를 지나 중반으로 치닫는 순간부터 자신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거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발이 지면을 닿을 때마다 육체적인 고통이 다리에서부터 뇌 속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회원들의 옆에서 함께 달리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트랙을 벗어나 가쁜 숨을 몰아쉬는 참가자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결승점, 환호, 그리고 아쉬움.....

드디어 결승점. 마라톤은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 마치 종점을 모르는 인생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은 마라톤의 결승점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라톤의 매력은 결승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이스가 이뤄지는 동안 좌우를 살펴보고 뒤도 돌아보는, 그래서 마라톤을 삶을 반추해 보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듯 싶다. 쉬지 않고 달린 후에 결승점에 다다라서야 그러한 여정에 대한 환호를 아끼지 않고 또, 그 가치를 느끼게 된다. 그 가치는 모든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진 것이리라. 이제 42.195km다. **S**